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중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교회내 젊은이 문화창출을 위하여

기대되는 신설 '청년교구'

10대 후반의 학습자부터 30대 중반의 단독세대
교회내 전체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
교회의 지원 및 젊은이들의 자발성 필요

1997년도 교구 개편과 함께 청년 교구가 신설되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물론 청년교구가 신설된 중요한 이유는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단독세대의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독세대를 일반 지역 교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교구를 만들어 그 안에서 관리, 교육, 활동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단독세대 관리문제는 심각하다. 이 연령층에 있는 젊은이들 중에는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등록했다 해도 이들 중 대부분이 학생이거나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교구 사역자들이 이들을 만날 수가 없으며, 이들의 주거 환경상 이사가 잦은 데다가 이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행정상으로 행방 불명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들은 친구의 권유 등 주변 상황에 따라 쉽게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형편이다.

이에 교회는 청년교구를 신설하여 이들을 한 방향과 관점으로 관리, 인도하기로 했다. 즉 학습 이상의 10대 후반 중·고등생부터 모두 등록시키고 이들을 고등부, 대학부, 청년1, 2부에서 흡수하여 소속감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고,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며, 이들이 교회에 적(籍)을 두고 교회의 관심과 도움 속에 교회에 적응하고 착근(着根)하게 함으로 장래 교회에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목적으로 교구를 신설하게 되었다.

이처럼 청년교구 신설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정확한 교세 파악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교회내 젊은이들의 관리가 가능해짐으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다. 교회내 젊은이들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고 차세대 주인공으로 교회 문화 내에서 균형잡힌 신앙인격자로 양육할 수가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좋은 목표나 방향이 설정됐지만 현실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지역 교구에 적을 두었던 단독세대를 행정적으로 청년교구로 옮긴 것이 전부라면 변화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좋은 목표와 방향 가운데 청년교구가 신설되었지만 진정 이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각 계층의 교인들이 감수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인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교회에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70년대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다 "이념적 갈등으로 학생운동이 한창일 때 교회 내에서 젊은이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자 교회의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제는 팔짱을 끼워도 좋으니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다.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편이다. 미혼 청년의 단독세대(가족 중 혼자만 중현교회에 등록하고 나오는 경우)가 1,500세대 정도. 그러나 그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목소리를 펴며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확보,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사인 통신공간(Cyber Space)에 대한 투자 등이 선행되고 지원될 때 청년교구는 활성화될 것이고 진정으로 젊은이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본교단 군목 초청 수련회 실시

25일 국제회의실에서 모여

본교단 군목 초청 수련회가 25일(월)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우리교회 국제회의실에서 모인다. 이 수련회는 육·

해·공군 부대에서 사역하는 본교단의 67명 군목들을 초청하여 위로하고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단일교회 주관으로는 우리교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수련회이다.

개회예배에서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설교를 하며 교회에서는 식사를 제공한다. 참가 군목들은 이번 수련회에서 군목단회의, 세미나를 통해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군 복음화를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 방법을 함께 모색하게 된다.

십자탑 점등식

26일 군전도회에서 기철봉에

북녘 땅에 예수 탄생을 알리는 성탄 트리용 십자탑이 동부전선 최전방 육군 00사단 기철봉에 점등된다.

군전도회(회장 김재명 장로)는 11월 26일(화) 육군 00사단 기철봉을 방문하여 십자탑 점등식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북한의 복음화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군전도회는 지난 92년 최전선에 13번째 십자탑을 기철봉에 설치했고 매년 방문을 하고 있으며 군의 복음화와 북한선교를 위해 위문 방문 및 진중세례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이 십자탑은 1997년초까지 밝혀지게 된다.



수감자격을 받았으며 임마누엘찬양대의 축하 감사 찬양 연주가 지난 11월 15일(금) 오후 8시 본당에서 실시되었다. 많은 시간 성실하게 연습한 임마누엘찬양대는 합창, 독창, 여성중창, 남성중창, 트럼펫 2중주, 오케스트라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민 본 회중과 함께 하였다.

다함께 모여 8년간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맞을 수 있었다.

선교지에 성탄선물을 보냅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연말과 성탄절에 다가옴에 따라 해외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보낼 성탄선물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헌금 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선교사님 및 그 가족들에게 큰 격려와 격려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각 부세, 기관, 교구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1996년 12월 1일(주일)
- 접수시간: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 접수장소: 사무국(총무과),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
- 접수종류: 성탄선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헌금, 기타.

(받은일 선교사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선교위원회 사무실(전화 352-8200 교번 357번)



충현장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잠깐의 승리

(시편 37:12-30)

1. 악인의 승리는 잠깐입니다(37:12-21)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을 향하여 같이 죄를 범하자고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끌려오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빛이 되어 자기들의 행악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워 의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을 죽이려고 이를 갈며 굳게 결심을 하고 말로써 헐뜯고 글로써 중상모략을 하고 칼을 갈고 숨은 곳에서 활을 당깁니다. 악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 가진 것 없고 정직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를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권능의 오른손을 펴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처치하실 때에는 악한 사람이 의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가지고 처치하십니다.

악인은 잘사는 것 같으나 많은 재산도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지옥에 떨어지면 물 한 방울 못 얻어 먹는 불쌍한 거지가 됩니다. 악을 행하면 남을 괴롭히고 남을 망치고 권세를 누리며 살지는 모르나 그 결과로 자신도 망하고 자손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억울함을 당해서 가난하게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살지언정 믿음을 지키고 사람 앞에 신용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때가 되면 육신이 잘사는 날이 오고 권위가 당당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부자가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의인의 보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위험한 자리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의인입니다. 또한 의로운 자의 가난한 생활은 길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앞에 존경을 받으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영육간에 큰 부자로 사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의인이 받을 상급은 어떠합니까(37:22-31)

(1) 땅을 차지합니다

의인은 억울함을 당하며 가난하게 살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살지언정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사람 앞에 신용을 지키면 때가 되어 육신도 잘사는 날이 옵니다. 의인은 가난의 날에도 풍족히 지냅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든 애굽에서 의롭게 살기를 애쓰던 요셉은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의인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악인들의 마음을 받으며

억울함을 당하지만 그때가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로서, 첫째,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람 앞에 신용을 지키며 책임에 충성하면 옳은 사람으로 인심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억울함을 당할지언정 위사람에게는 칭찬받고 아랫사람에게는 존경받고, 악한 자 앞에서는 멸시를 당해도 양심있는 사람 앞에서는 존경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둘째, 땅 위에서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셋째, 자손들이 창성합니다. 넷째, 생명이 장수합니다. 악인들보다 어려운 때를 지내는 것 같으나 다른 사람보다 장수합니다. 다섯째,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취급을 받고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 하나님께서 길을 정하십니다

의인이 가는 길은 남 보기에는 꼭 망하는 길 같은데 얼마 있다 보면 남보다 앞서 갑니다. 남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성공의 지름길이 됩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살기를 원하는 자의 길을 정해 놓으신다고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요셉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성공의 길을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되 길을 정해 놓으시고 비록 었드러지는 일이 생겨도 그 일로 인하여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3)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의인은 개인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쓰고 싶은 것 안쓰고 절약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줍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물 위에 양식을 뿌리는 것처럼 다시 받을 수 없는 손해가 납니다. 부자에게 주면 부자가 신세를 갚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홍수에 뿌리는 씨앗처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나누어 주면 사람에게서는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이자를 붙여 주십니다.

의인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자손들이 천배, 만배로 그 복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죄를 범하면서 돈을 모으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 죄한 돈을 자식에게 주는 것은 저주를 물려 주는 미친 부모입니다. 악을 심고 복을 받는 법은 없습니다. 돈을 바로 벌어서 바로 쓰는 사람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또 자손도 부모가 잘 산다고 부모의 것을 가지고 잘 살 마음을 갖거나 부모가 남겨놓은 유산을 가지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거지의식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살기를 원하는 자의 길을 정해 놓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되 길을 정해 놓으시고 비록 었드러지는 일이 생겨도 그 일로 인하여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벌어서 선한 일하고 자손은 몸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해서 살며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느 가정을 보면 부모의 재산을 어느 아들이 더 많이 갖느냐 하고 형제끼리 싸움까지도 합니다.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욕이 되고 남의 가슴 아프게 한 돈을 가지고 무슨 영화를 누리자는 말입니다.

부모가 번 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선한 일 하고 자식들에게는 자기 의식을 키워 주어 벌어서 살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참 부모요 참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자기 할 일을 다하면 그 자손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4) 기회를 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므로 남을 괴롭히고 남을 망치고 악을 행하면서 돈을 모으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악을 행하면서 권세를 누리면 당장은 잘 살지 모르지만 악을 심은 결과는 반드시 자신도 망하고 자손도 망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깨닫고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한 일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악한 일을 함으로써 이익이 생기고 권세가 오고 앞길이 열리게 되어도 그 일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악을 꼭 그대로 갚아 버리시지만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악을 행한 죄값이 태산 같더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자손들이 별 받는 것도 면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할 것이고 악을 행하던 자들도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자기가 사는 길이고 자손들이 별을 면하게 되는 지혜입니다.

또한 악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살겠습니다." 악을 떠난 시간이 선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양심이 살고 영혼이 살고 육신도 살며 자손도 사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이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

신 심판은 배부실 사랑을 준비하셨다가 회개를 하면 당장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악을 떠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침내 몽둥이를 드시니 그 같은 심판을 받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해집니다.

(5)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양심이 병들고,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입의 말이 정직하고 보는 눈은 죄우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으로 먹은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이 무력무력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들고 가는 사람은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거나 함정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무장한 사람은 언제 싸워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미경으로 삼은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선악을 분별하며 장래의 소망이 환하게 보여 낙심이 없습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잠생각이 들지 않아 남보다 늘 앞서게 됩니다. 이와같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 있으므로 성공을 하며 복을 받습니다.

꽃은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야 아름답게 피는데 꺾이다 꽃은 꽃은 보기에 예쁜 것 같으나 사실은 불쌍합니다. 꺾어 놓은 나무에는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사람이 되려면 그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을 행하는 사람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성도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시편 37편에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를 심어 복을 받고 자손이 축복받는 가문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전도하는 의인이 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선교위원회 한해를 결산하며 ○

감사와 후회가 교차하는 1년

강기엽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선교 총회를 치른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감사절을 뒤로 했다.

'96년을 한달 남짓 남겨두고 있는데,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하늘 공간에 잘 쌓아 두었는지 아니면 시간과 물질만 낭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공허한 마음만 남았는지 뒤돌아 본다.

길거리마다 수북히 쌓여 있는 낙엽들을 보노라면, 어느새 어린 새싹이 터서 수목을 이루고 낙엽이 되어서 거리들을 구르는데 나는 무엇을 하며 한 해를 보냈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마음을 조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거두었든, 적게 거두었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분들도 있을 것이다.

선교위원회 1년을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 상고하고자 한다. 새로이 실행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매주 일 아침 9시면 어김없이 장봉생 목사님의 말씀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회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 오고 있다.

20여명이 모여 기도하며, 미력하나마 선교사님들께 힘이 되고자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다.

지금도 실행위원을 주축으로 해서 교회학교와 교구에서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며 주일 오후 4시 기도회 때 찬양을 인도하는 등 교회 안 구석진 곳까지, 선교라고 하면 발벗고 나서서 일하시는 열심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선교위원회는 하루 종일 본 위원회를 섬기는 분들로 가득하며 사랑과 나눔의 곳이기도 하며 처음 시작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며 충현교회 선교의 미래를 본다.

선교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수요일 1부예배 전 10시와 주일 오후 4시에 사랑부실에서 하는데 기도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권사님들께서 열심히 부르짖고, 여기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장년부까지 합세한다면 분명 충현교회는 한국교회에서뿐 아니라 세계교회에서도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월 22~24일은 고등부 선교수련회를 열어 강원도 홍천-원통-인제-속초 등 장소를 옮기면서 노방전도와 찬양전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시간들을 가졌다.

또 한 가지 열매라고 한다면 7월, 8월, 9월에 걸쳐 해외 단기 수련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태국을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일본, 터키를 청년·대학생이, 홍콩을 선교연구원에서 다녀오면서 선교지의 이해를 높였고 선교에 대한 관심과 도전을 고취시켰다는 유익을 얻었다. 또 8월에 있었던 '96선교한국을 참여한 충현의 젊은이들이 30여명이나 되었는데 이들 중 절반이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는 귀한 일들을 접하면서 가슴 뭉뚱하고 벅찼다. 단기선교를 다녀오신 분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기도회로 모이고 있고 대학·청년부들은 선교헌신자들의 모임을 매주 금요일에 갖고 있다.

이런 여러 모양으로 헌신된 자들에게 선교위원회가 또 교회가 무엇인가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관심이며 고민이다.

교회가 헌신자들을 발굴하고 양육하는 것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여긴다. 물론 선교연구원이 있긴 하지만 훈련의 강도가 약하고 교회 차원의 관심과 관리가 부족한 것 같다.

또한 이스라엘 성지연구소를 선교 실행위원들이 다녀왔다. 그곳을 방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96년 선교위원회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라면 4월중에 계획했던 선교 대회를 담임 목사님의 공석으로 열지 못했다

는 것이다. '97년도에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인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명령을 온전히 좇는 일을 위하여 온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로, 물질로, 여러 모양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를 기대한다.

아마 7월이라 기억되는데 선교위원회실로 노련사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다. 어떻게 찾아 오셨느냐고 여쭈었더니 저금통 2개를 내미시면서 이거 선교헌금으로 쓰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헌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국에 갔었는데 선교위원회로 갔다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내가 권사님께 어느 선교사님 앞으로 송금해드릴까요 했더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저금통에는 100원짜리와 십원짜리 동전으로 가득했다. 그것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저금통을 가져오기까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얼마

나 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왔다. 이 헌금은 이스라엘 성지연구소 기금으로 쓰기로 했다. 이 일 외에도 안수집사회에서 선교사님에게 책구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서 감사를 드린다.

또 아프리카에 계신 H선교사님은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꾸러미 속에 들어 있는 사과를 보고는 차마 먹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책상 위에 놓고 보고 또 보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면 한국의 요리책을 보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저렸다. 선교사님께 편지를 써야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지만 일년을 훌쩍 보낼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나의 작은 정성 하나가 선교사님들을 행복하게 하고 더욱 사역에 힘쓰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크리스마스를 맞는다.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 중에 만나는 선교사님들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카드나 편지, 기타 여러 모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한다면 내년 1년이 하루처럼 기쁨 속에서 사역에 임할 것이다.

금년 한해 동안도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물질과 섬김으로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좌) 수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영대 선교사. 재종자 가정을 방문하여 성경공부를 하는 모습.
(중) 청년1부가 중심이 되어 사역한 터키에서 인형극을 보고 어린이들이 울며 기도하는 모습.
(우) 이스라엘에 건립키로 한 성지연구소 부지.

주간충현(계간충현)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간충현(계간충현)에서는 보다 더 감동적이고 친근한 신문으로서 한 걸음 더 모든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생생하고 주옥같은 원고를 모집합니다. 혼자 가슴 속에 묻어두기에는 아까운 산 체험과 소중한 이야기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간충현(계간충현)으로 보내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12월에 <계간충현> 겨울호를 준비하며 아래와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1. 원고종류 / 간증, 수필, 시(동시), 제언, 일기, 서간문, 만평, 소설(동화), 콩트, 기타

· 교회 사랑, 교회 자랑 - 교회생활을 하며 경험한 '교회 사랑, 교회 자랑'의 내용들로 ① 내 교구 자랑, ② 부서 자랑, ③ 나는 이래서 충현교회가 좋다 ④ 기타

2. 원고마감 / ① 주간충현은 마감 없습니다. 다만 시사성이 있는 원고나 뉴스 종류는 게재될 전 주일 찬양예배 전까지이며, 특별한 경우는 수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십시오.

② <계간충현> 원고는 11월 27일(수)까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



토막소식

▶ 유아부에서는 오늘 낮 12시 30분부터 교육관 212호 유아부 예배실에서 어머니 초청 좌담회를 실시한다. 강사는 정지자 사모(정규남 목사)로 신앙 안에서 어린 자녀들을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한편 12월 1일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성경이야기 예선을 실시한다.

▶ 유치부에서는 오는 11월 26일(화) 오후 7시부터 교사 전체 기도회를 실시한다.

▶ 초등5부에서는 오늘 신입생환영회를 실시한다. 지난 10월과 11월에 등록한 어린이들을 환영하는 시간이다. 다음 주일인 12월 1일에는 4학기 성경교사를 치른다. 범위는 38~44과.

▶ 장년1부에서는 오는 12월 1일(다음 주일) 구명신 전도사를 강사로 하여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과소비와 사치 풍조로 나라 경제마저 위태로운 이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장년3부에서는 오늘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한다. 한편 12월 22일까지를 제3차 부흥기간으로 정하고 500명 회원 출석을 목표로 기도와 전도에 매진하고 있다.

실업인전도회 대상 회원 초청 전도집회 개최

11월 28일 오후 7시 만나홀

충현실업인전도회(회장 임무천 장로)에서는 금년도 제2차 대상회원초청 전도집회를 11월 28일 오후 7시에 만나홀에서 정광옥 지도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갖게 된다.

실업인 영적 각성집회를 가점으로 금년을 시작했던 실업인전도회에서는 올 한해 동안 교회 여러 부서에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며 교회 발전에 밀거름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특히 미자립교회의 목회자 자녀와 불우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하고 경찰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적 헌신도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도 더 큰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교회 부흥에 앞장서는 전도회가 되고자 이번 제2차 대상 회원 초청 전도집회를 개최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을 하거나 기업체의 직원인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장을 복음화 하고 실업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집회 후 다과회 시간에는 친구회원간에 교제를 나누게 된다.

충현복지관 추수감사절 기쁨의 잔치 열어

충현복지관에서는 지난 11월 19일 추수감사절, 기쁨의 잔치를 열었다.

충현교회를 통해 정신지체인들을 위한 복지관을 세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복지관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분들을 모시고 기쁨의 잔치를 나누는 자리



외국인 근로자 초청 잔치 지난 11월 17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영어예배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온 이 초청 잔치에는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150여명의 근로자들과 방문자들이 참석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지난 한해 동안 배를 따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또한 교회가 준비한 식사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다. 식사 후에는 성도들이 보내온 1,000여점의 의류와 별도로 마련한 생활필수품들을 선물로 전달하고 의료전도부의 지원을 받아 몸이 불편한 20여명의 근로자들을 진료해 주기도 했다.

96년도 하반기 정기감사

감사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하반기 정기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12월 1일~15일
2. 대상부서 :
 - ① 96년도 상반기 감사 부서 전부
 - ② 96년 7월 1일~11월 30일 결산 부분
3. 구비서류 :

수입원장, 금전출납부, 영수증철, 시산표, 저금통장
4. 장소 : 감사위원회실 (선교관 404호)
5. 시간 : 매주일 오전 9시~오후 4시

직원모집

1. 모집부문

- 가. 음영(여, 유경험자 22세 미만) ○ 명
- 나. 경리(여성고졸, 22세 미만) ○ 명
- 다. 사무(여성고졸, 22세 미만) ○ 명
- 라. 설비(남, 30세 미만) ○ 명

2. 자격

세례교인으로 신앙이 돈독한 성도

3. 제출서류

- 가. 이력서(사진 포함) 1통
- 나. 주민등록등본 1통
- 다.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1통 (기타 서류는 채용후 제출)

4. 서류제출 및 문의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교한 402)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호주 이기성 평신도선교사 ▶



인도에서 본격적인 선교훈련: 금년 12월 말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 인도 칼카타에서 김창인 원로목사님을 비롯한 선교위원회 모든 분들과 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서부 호주'의 주수도인 '페이트'에서 훈련을 마치고 10월 3일 방콕을 거쳐 이곳 캘커타에 도착했습니다. 저의 팀은 저를 비롯한 호주인 4명, 캐나다인 2명, 인도네시아인 5명, 일본인 1명, 미국인 1명 모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훈련이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장년2부 윤영탁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힘입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곳 인도에 온 지 약 2주가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는 거리에 나가서 인도인들과 대화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공원이나 빈민촌 또는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를 찾아가서 찬양과 짧은 드라마, 간증, 복음이 담긴 짧은 메시지를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인도인들이 영어를 할 줄 알기에 대화에는 별 불편함이 없고, 그룹으로 이동할 때에는 현지의 언어로 통역하는 사람을 대동합니다. 비디오 시스템을 준비하여 복음적인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곳 인도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생활 형편이 어렵습니다.

80년 전 스타일의 자동차들과 똑똑이 택시, 인력거와 사람들이 한데 뒤엉켜 끊임없이 울려대는 크라션, 곡예를 하는 듯한 운전, 흙먼지와 매연, 찌는 듯한 더위, 수많은 모기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5일간 테라사 수녀가 운영하는 구호소에서 환자들과의 옷과 침구를 빨고 그들의 치료를 돕는 등등의 일들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곳이 이 도시에만 1,000개가 있다고 해도 이 도시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게 보입니다.

다행인 것은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호감을 갖고 있어서 접근하기

가 쉽고, 특히 인도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좋아서 무척 다행입니다.

저희는 이곳에 12월 말까지 머무를 예정입니다. 그간 많은 대원들이 음식문제로 인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 목사님과 부장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기도에도 다시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1. 성령께서 늘 함께하셔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2. 팀사역이 잘 이루어져서 잘 연합될 수 있도록
3. 질병에서 주님의 보호가 있기를 (소화 계통, 말라리아 등)
4.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5. 시드니에 있는 가족들을 주님께 서 지켜 주시도록

1996. 10. 13
평신도선교사 이기성 올림